[QT 세미나]
묵상속에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4)

이상규 목사 / 2000/ 페이지수: 3

"증인은 온전한 증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되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생애 전체를 보고 들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이유 중 가장 명백하고도 강력한 표현 중의 하나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으로 이 역사 속에 그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을 기록한 그 첫 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규정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my witness)이 되리라"(행 1:8).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존하는 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 시대와 역사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파송된 것이다.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가 지적하듯 "참다운 의미의 그리스도교는 개인적인 결단에 따른,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려면, 그는 자기가 말하려는 것에 대하여 친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증인이란 무엇보다도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이다. 동시에 증인은 온전한 증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되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생애 전체를 들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12사도 중 가룟유다가 빠진 자리를 채우고자할 때 베드로가 제시하는 '사도 선출기준'에 명백히 드러난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하여야 하리라."(행1:21.22)

우선 이 구절은 증인의 자격요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가신 날까지" - 총체적으로 보고 들은 사람이어야 함을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은 한걸음도 무의미한 것이 없었다. 그 분의 앉고 일어섬과 그 분의 말씀 한마디조차도 구약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천둥과 번개였다. 그 분의 생애는 구속사라는 대드라마의 종말론적 절정이요 그 응집이었다. 한 대목도 빼거나 더할 수 없는 충만한 유기체적 이야기였다.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집합이 아니요 전체를 모르고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부분의 의미들이 있다.

구속사의 대드라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일단 그 분의 생애 전체를 알아야 한다. 둘째로 증인의 자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들은 데서 얻는 깊은 인식이 요구된다.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는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3년여 공생애 동안 항상 12제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면 긍정적 의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할 수 없이 깊은 신앙과 앎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3년여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 12제자의 삶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의 40년 광야 여행길에 비추어볼 때 분명해진다. 그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오직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치거나 진행했는데, 실상 성막을 가운데 두고 따르던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따르는 12제자와의 관계는 예표와 실상의 관계이며, 이러한 유형의 삶을 아주 특별한 인식론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운데' 구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그 동산의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고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이 그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에 대한 계명(언약법)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구조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진 '가운데'에 법궤를 넣은 성막을 두고 행한 것이요, 12제자가 참된 말씀의 성육화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1:14)를 항상 '가운데' 모시고 따랐던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구조 속에서는 생사를 거는(뜻, 성품, 목숨 등을 다하는) 인식론적 헌신, 신앙적 결단이 아니고는 결코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에덴 밖으로, 진 밖으로, 가룟 유다처럼 언약그룹 밖으로 쫓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날마다 십자가적 깊이로 자기를 부인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간교하고도 무서운 시험의 늪과 절망의 강을 건너 그 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자리에까지 따라온 3년이란 그의 존재의 뿌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다.

보고 들은대로 순종하기

그렇다면 이제 2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의미를 마치 내가 직접 보고 듣듯이 체험하며 진정한 증인으로서 자신을 형성해 갈 수 있겠는가? 다른 길이 없다.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피상적인 성경공부를 지양하고 말씀

과 눈과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는(디아노이고) 성령의 도우심과(눅24:31, 32, 45)성화된 상상력 속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며 관상하는 것이 우선이요 거기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묵상’속에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끝

*** 출처 : Q T 신 문 (2000. 7. 2)**

http://file.cgntv.net